

스마트홈네트워크쇼 1억6400만달러 상담실적



지난 5월 30일부터 4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2007 스마트홈네트워크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홈네트워크 관련 행사다. 이번 전시회에 만 총 1만8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 가운데 85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대거 방한, 1억6400만달러의 풍성한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 맞는 이번 전시회는 IT 강국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바일과 홈네트워크를 접목한 다양한 제품이 선보였다. 특히 가정과 빌딩, 나아가 u시티 개념을 선보이며 국내·외 참관객과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는 평가다.

'유비쿼터스 홈 앤 시티(Ubiquitous Home & Cit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 유일의 홈네트워크쇼답게 미국·중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6개사를 포함, 국내·외 114개 업체가 참여해 디지털 정보가전, 홈시큐리티, 지능형 로봇 및 홈엔터테인먼트 등 1만 2000점의 홈네트워크 관련 기기를 선보였다.

관람객들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시연관이 별도 운영된 점도 내방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코트라(KOTRA)와 협력해 중국·일본 등서 1000여명의 바이어를 초청, 홈네트워크 제품의 수출 증가를 도모한 점은 참가업체들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전시회는 홈네트워크 산업을 이끄는 정부 3개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와 전자산업진흥회, 킨텍스(KINTEX),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 등 4개 기관도 전시회의 발전과 참가업체의 참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전시 외에도 한·중 1:1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u홈 건설 활성화 세미나, 홈네트워크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KT, SK텔레콤, 대한위즈홈, 대림I&S 등 홈네트워크 분야의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등 총 114개 업체가 453개 부스에서 홈네트워크 기기와 솔루션 등 총 1만2000여점의 제품을 뽐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 전용 단말기 하나로 집안의 조명과 가스밸브, 보일러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집안의 모든 상황을 TV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거실 중심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김영수 상무는 "앞으로 홈네트워크는 홈오토에서 '홈엔터테인먼트'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도 그동안 시범 서비스를 해왔던 '휴대전화 보안 시스템'을 선보였다. 홍예진 SK텔레콤 홍보실 매니저는 "예컨대 보안서비스는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침입 발생 사실을 고객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보해 준다"며 "특히 고객이 휴대폰을 통해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현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지난 5월 초에 상용화시켜 SK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에 적용 중이다.

COMPUTEX 2007에서 한국관 해외바이어로부터 큰 주목 받으며 기대이상 성과 거둬

지난 6월 9일 폐막한 COMPUTEX 2007에서 한국관에 참가한 국내 12개 중소 IT 벤처 기업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시회 기간 중 상담실적이 6천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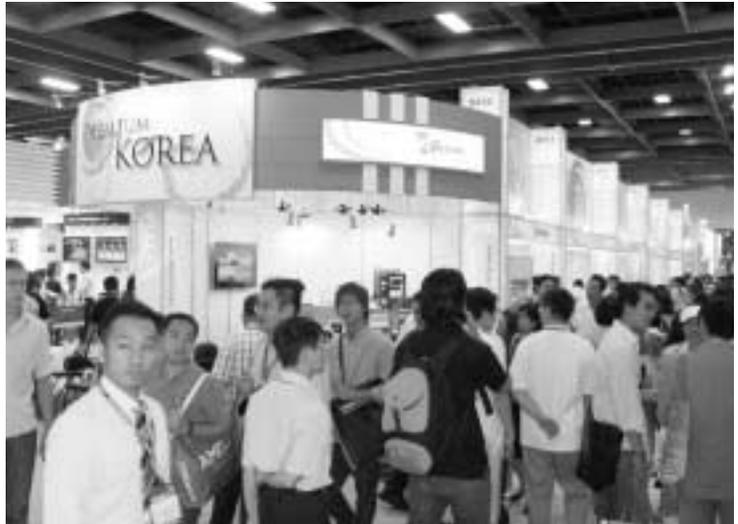
본회와 KOTRA가 공동주관한 이번 한국관에는 사운드그래프, 쓰리알시스템, 올인원디스플레이,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유한하이테크, 지엠코퍼레이션, 브이엘시스템, 새로텍, 새빛마이크로, 엠트론, 크라프트코리아, 포스뱅크 등 12개사가 16부스 규모로 참가했으며 컴퓨터 부분품,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기기 등 다양한 첨단제품이 출품됐다.

플래시 메모리 디스크(F-SSD) 전문기업인 엠트론의 경우 미국의 대형 반도체 유통업체와 1,000만불 상당의 대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단계에 있어 미주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버티컬 오픈방식 PC 케이스인 R-2 TOAST 모델을 선보인 지엠코퍼레이션은 일본 및 인도의 대형유통업체와 연간 1,00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뱅크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새로 출시한 Thermal Receipt Printer 제품에 대해 미국의 POS시스템 유통대기업과 연간 100만불이상의 OEM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주시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베트남 우수기업과 연간 90만불이상의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미디어통합솔루션(iMON)을 출품한 사운드그래프의 경우 유럽, 미주 등의 대형PC유통업체, 홈씨어터 케이스 및 시스템 공급업체와 연간 300만불이상의 수출계약을 추진 중이며, 멀티미디어 PC 컨트롤러를 선보인 브이엘시스템은 프랑스의 대형유통업체에 연간 70만불규모의 OEM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전문기업인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의 경우 독일, 일본, 러시아 등의 우수 SI업체와 대규모 수출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이번에 출시한



옴트론 1P 서버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전시회 기간 중 많은 상담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인원디스플레이의 대형 와이드 LCD모니터의 경우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에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우수기업과 연간 12만대 상당의 OEM수출을 추진 중이며, PC 케이스 전문기업인 쓰리알시스템은 중동의 대형 PC메이커와 SKD방식으로 대규모 수출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Intel, AMD, Microsoft, Acer, Asus, Foxconn, Toshiba, Hitachi, Giga-Byte, Inventec, Ritek, Hon Hai 등 유명 글로벌 대기업을 비롯 1,333개사(2,926부스)가 참가하였으며, 133,000여명(해외바이어 32,000여명 포함)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COMPUTEX 한국관 공동주관기관인 본회와 KOTRA는 “국내 중소 IT벤처기업의 출품작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COMPUTEX에 대한 참가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2008년에는 한국관 부스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체들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MPUTEX 2008은 내년에 새롭게 오픈하는 TWTC Nangang Exhibition Hall (www.twtcnangang.com.tw)에서 4,500부스 규모로 확대 개최될 예정이다.

IFSEC 2007, 한국 첨단기술로 바이어들을 사로잡다

지난 5월 24일 폐막한 영국 버밍햄 보안기기 전문전시회인 'IFSEC 2007' (5.21~24)에서 한국은 삼성전자·LG전자 및 중소기업 80개사가 참가하여 첨단 보안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다시한번 세계 선두 보안기술 강국임을 입증하였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 Sony, GE Security, SIEMENS, ADI, Axis communications, CIC Secure, Honeywell, 삼성전자, LG전자 등 유명 글로벌 대기업을 비롯하여 세계 70개국에서 802개 업체들이 참가하였으며, 110개국 4만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와 KOTRA 런던무역관(관장 김상욱)은 이번 전시회에서 씨엔비텍, 아구스, 케이티브이글로벌, 워너텍시스템, 휘엔시스 등 41개사 47부스 규모로 한국관을 공동 구성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경기도 우수 보안기기 중소기업 아이캔텍, 오이로, 원우이엔지, 지에스피씨시스템즈, 케이프로텍, 코디텍, 티비티, 지에스티, 리누덱스사가 한국관에 참가하였다.

한국관에 참가한 국내 41개 중소 보안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영국·독일·터키·동유럽 등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2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과 8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 되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출품한 생체인식기기, RFID Tag, 네트워크 서버와 IP카메라, 지문인식 출입통제기, Portable DVR, 홈 오토메이션 등이 주목을 받았다.

제 12회 전자부품기술대상, 참가신청 안내

본회가 주관하여 전자부품의 국산화 촉진 및 기업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개최해 온 「전자부품기술대상」이 12년째를 맞이하였다. 올해에도 전자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 행사 참가업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할 예정이다.

가. 참가대상

- 전자부품 및 소재 제조업체 및 개발자(1년 이내 개발된 부품)

나. 참가부문 : 제품 및 개인 부문

다. 참가방법

- 신청기간 : '07. 6. 5(화)~7. 26(목)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제품·개인부문 신청서 각1부
라. 포상업체 특전

- 산업기술개발자금 (사업화 부문)신청시 가산점 부여
- 국내·외 Marketing 지원('07 KES 무료전시, 제품 발표회 등)
- 교육(특허분쟁, 환경규제, 인적자원) 우선 실시 등

마.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처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장석준 과장, 전지희
- Tel : (02) 553-0941 (Ext. 372, 375),
- E-mail : sjjang@gokea.org, vipur@gokea.org

『2007 뮌헨 국제 정보통신 박람회(SYSTEMS 2007)』 참가업체 모집

본회와 KOTRA 공동주관으로 『2007 뮌헨 국제 정보통신 박람회(SYSTEMS 2007)』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 전시회의 한국관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다.

가. 개최기간 : 2007년 10월 23일 ~ 10월 26일, 4일간

나. 개최장소 : Neue Messe Munchen

다. 참가업체 : 28개국 1,262개사

라. 공식 홈페이지 : www.systems.de

마. 한국관 규모(예정) : 144㎡(15부스내외)

바. 문의처

전시사업팀 장일주과장

- 전화: 02-553-0941 (교환 325)

팩스: 02-563-7371

- e-Mail: cij@gokea.org

IFA 2007 (베를린 가전 박람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본회와 KOTRA 공동주관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2007(베를린 가전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 전시회의 한국관 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다.

가. 개최기간 : 2007. 8. 31(금) ~ 9. 5(수), 6일간

나. 개최장소 : 독일 베를린 Messegelaende 26개홀

다. 전시면적 : 160,000㎡

라. 한국관 면적 : 346.5㎡(29부스내외)

마. 문의처

전시사업팀 장일주과장

- 전화: 02-553-0941 (교환325) 팩스: 02-563-7371

- e-mail: cij@gokea.org

2006 디지털전자정보산업 통계 연감 광고게재 안내

본회는 국내 전자산업의 진흥 및 전자업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전자, IT 업계의 대표단체로서 매년 디지털전자정보산업 통계 책자를 발행해 오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전통 통계연보인 디지털전자정보산업 통계는 품목별, 국가별 통계정보를 분석하여 통계 정보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및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독자층이 매우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전자정보산업계의 대표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2007년판 2006 디지털전자정보산업 통계 연보에 광고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 발행부수 : 5,000부

- 면수 : 800p

- 사이즈 : A4(5*7판)

광고게재 요금 (단위: 원)

색 도	게재면	요금	비 고
원 색	표 4	3,000,000	부가세별도
원 색	표 2 및 표 2 대면	2,500,000	부가세별도
원 색	표 3 및 표 3 대면	2,000,000	부가세별도